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가 충분하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돌고래 등 갇힌 환경에서 지낼 경우 죽음에 이르는 사례 등을 제시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기존의 동물원이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논증이 명확히 제시되면 좋을 듯.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가 논의를 해야 함.
- ④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론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 전시가 아닌 보호를 위한 동물원

게임 멀티미디어학과  
202110825 정성욱

### 서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두 칸 들여쓰기]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동물원이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제주부리는 곰, 멧지게 우는 사자들을 영상으로 본 동물들을 실제로 구경하러 가는 것에 가슴 설레어 동물원에 갔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거나 먼 산을 보는 동물들. 서식지를 모방한 인공적인 보금자리, 팻말에 간단히 몇 줄 적힌 그들의 정보들이 있다. 동물원에 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보다 좋은 방면으로 나아가는 동물원이 다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물원들이 더 많다. 인간 문제에도 정답이 없듯이 동물원에 대해서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렇지만 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동물원의 동물은 전시되는 표본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써 존중받아 마땅하다. 지금부터 좋은 추억 속의 동물원이 아닌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마주 보고 알아보자.

### 본론

#### 1. 등록제와 허가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은 2021년 기준으로 110곳이다. 공공으로 운영되는 곳이 20곳이고 민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90곳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아니 3분의 1로 줄여도 충분해 보인다. 미국의 동물원 수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동물원은 355곳이다. 이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동물원 수가 적어 보이는가? 미국과 한국의 땅덩어리의 차이는 98배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법의 문제에 있다. 한국은 동물원을 등록제로 운영이 되어 종이 10종이 넘거나 개체 수가 50마리가 넘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누구든 여건이 된다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준이 낮아 동물원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는 법의 규제에 있다.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과 관련된 제 3조의 8항

1) 국가 법령 정보센터 2021년 12월 10일 [ULR 주소와 접속 날짜](#).

과 제6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이처럼 서식환경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 적절한 서식환경이라는 말은 물과 밥이랑 잘 곳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적절한 서식환경인가?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의 절반 이상은 실내 동물원이다. 2)영국의 동물보호단체 본 프리 재단 (Born Free Foundation)의 크리스 드레이퍼 대표는 국내의 한 실내 동물원을 견학하고는 "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전시 시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동물복지가 좋은 나라들의 동물원은 허가제로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허가제로 동물원이 운영된다면 실내 동물원이라는 전시 시설도 사라지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라쿤 카페, 미어캣 카페 등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등록제로 인한 무분별한 동물원 운영은 동물원 가치를 떨어트리고 환경 또한 열악하다. 동물권, 전시목적, 보호 목적을 논하기 전에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해 하루빨리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보호 목적을 위한 동물원 -> 국립공원 형태의 자연사 동물원을 염두에 쓰고 있는 것 같음. 예컨대, 아프리카 세렝게티 또는 사바나와 같은 장막을 두르지 않은, 즉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간이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만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동물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 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 동물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간 동물원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존재했다. 벨기에, 미국, 일본 등 지금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인간 동물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지우고 싶은 역사로 남아있다. 3)벨기에를 예로 들어보자 벨기에에서는 콩고인들을 상대로 인간 동물원에 전시하였다. 벨기에의 인간 동물원은 관광객들이 바나나를 던지면서 깔깔 웃으며 춤을 추어라. 원숭이 흉내를 내라 등 오로지 관광객들의 재미와 유흥을 위해 만들어졌고 적나라하게 인간을 전시목적으로 이용하여 운영하였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윤리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금세 인간 동물원은 사라졌다. 현대로 돌아와 지금 동물복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이 다수 존재한다. 여기서 든 의문점은 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원은 인간 동물원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현재에 이르러 줄어들어는 커녕 지금도 늘어나기만 하는 것인가 동물이라서? 그렇다면 동물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동물원이 현저히 적어야 하는데 독일의 동물원은 302곳이 있고 한국과의 면적 차이는 3~4배이다. 만일 벨기에가 콩고인들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질타는 커녕 귀가 닳도록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4)이는 전시목적과 보호 목적의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전시목적으로 이루어진 동물원이 많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고 동물권을 보장해주는 동물원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사람들 또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아원, 보육원이 있다. 이를 비윤리적이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할 자가 있는가? 과거의 오로지 전시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간 동물원과 달리 현대의 동물원이 유지되는 것은 보호를 목적으로 한 운영 방식에 있다.

- 
- 2) 편광현,이후연, “동물원 중 절반이 '실내동물원'...“한국의 동물 도와달라” BBC에 편지 보낸 10대“ 중 앙일보 2019년 4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31250#home> (2021년 12월 9일 접속)
  - 3) 김연진 “‘인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사람들이 주는 음식 받아먹는 아기”인사이트 2017년 10월 24일 <https://www.insight.co.kr/news/124189> (2021년 12월 10일 접속)
  - 4) 함태성,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9권 제3호 pp439-473

### 3. 좋은 환경만이 보호는 아니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기린, 하마, 등은 우리나라 야생에서 볼 수 없는 종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동물원에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5)야생동물들을 포획하여 동물원에 데려오는 것은 법적 규제를 뒤 보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5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발효해 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로 국내외 동물원끼리 동물교환을 통해 데려오거나 번식으로 동물원 개체 수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무겁게는 수 톤 가볍게는 몇백몇십 킬로그램의 움직이는 생명을 국내외로 수송한다는 것은 많은 인적자원과 자본이 들어간다. 그리하여 동물원 내에서 번식하게 되어 근친교배로 유전적 병을 앓고 태어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근친교배로 태어난 호랑이 4 마리중 1 마리꼴로 유전병을 앓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동물원은 인근 지역과 협약을 맺어 근친교배를 피하고자 동물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의 달성공원 동물원에는 조류 외에도 포유류·어류 등 근친교배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포유류의 경우 아예 근친교배를 하지 못하도록 합사를 시키지 않고 있다. 암컷 1마리, 수컷 2마리의 호랑이도 발정기엔 만나지 못한다. 포유류의 경우 근친교배 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사소한 공격을 받았을 때도 쉽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을 잃게 되고 종 보존의 가치가 떨어진다. 단순히 보금자리의 환경과 먹이를 개선해주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사육한다는 것은 그들 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 결론

우리는 필요에 따라 동물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1800년대 중반에 유럽 곳곳에서 덩을 놓거나 총을 쏘아 한 해 3000마리나 되는 새의 숨통을 끊어 냈다. 보들보들한 새털로 장갑을 만들려고, 예쁜 새 깃털을 모자 장식으로 뽑고 다니려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먹잇감으로 잡던 들소를 1870년대부터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면서부터 닳치는 대로 잡아 멸종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동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 또한 달라졌다. 동물 보호 단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비윤리적인 동물에 대한 처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하여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 왜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 행동하나, 동물들 또한 6)'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내재적 가치'를 동물에게까지 확장하면서 자신이 바로 삶을 이끄는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은 본래 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사람만이 아닌 다른 생명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국가 법령 정보센터 2021년 12월 10일

김광연 「동물 생명의 가치와 인간과의 공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pp97-121

5) 노정래, "야생의 동물들은 어떻게 동물원으로 올까" 애니멀 피플 2018년 10월 16일(수정)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6007.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6007.html) (2021년 12월 9일 접속)

6) 김광연 「동물 생명의 가치와 인간과의 공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pp97-121

함태성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  
법학회」39권 제3호 pp439-473

김연진 “‘인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사람들이 주는 음식 받아먹는 아기”인사이트 2017년  
10월 24일 <https://www.insight.co.kr/news/124189> (2021년 12월 10일 접속)

노정래 “야생의 동물들은 어떻게 동물원으로 올까”애니멀 피플 2018년 10월 16일(수정)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6007.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6007.html) (2021년  
12월 9일 접속)

편광현, 이후연, “동물원 중 절반이 '실내동물원'...“한국의 동물 도와달라” BBC에 편지 보낸  
10대“ 중앙일보 2019년 4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31250#home>  
(2021년 12월 9일 접속)